

‘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④ 주승용(국민의당·여수)을

“연립정부 전제돼야 대선 야권단일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내 패권주의 문제가 폭발한 계기는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주승용 의원의 당직 사퇴다. 호남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주 의원은 지도부 내에서 당내 패권주의의 청산을 강력 주장, 주류 측과 긴장 관계가 형성됐으며 결국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이 당내 패권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당 사태가 현실화되자 주 의원은 고민 끝에 올해 1월 ‘정권 교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며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그의 결단은 호남 민심의 주목을 끌면서 다소 주춤했던 국민의당 창당 바람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도원실에서 군수, 시장을 거쳐 4선 중진의 국회의원이자 호남의 정치적 리더로 성장한 주 의원은 이제 정권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주 의원은 “정권 창출을 통해 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호남 민심의 요구”라며 “호남 민심과 시대적 요구에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전 대표 총선 패착 원인은

패권 청산 호남민심 외면 탓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이 정국 운영의 키를 쥐게 됐다.

▲호남 민심의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 주효했다. 호남 민심은 패권주의의 청산을 통해 정권창출의 비전 제시를 외면한 더민주를 혹독하게 심판했다. 수도권 호남 민심도 경쟁력 있는 야권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당은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교차투표로 여소야대 구도와 3당 체제를 만들어 냈다.

-국민의당 정권 창출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여야를 넘나들며 정국을 주도하는 한편, 민생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의 길과 수권정당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인위적인 야권 통합의 논리가 아니다. 호남 민심도 야권 통합을 원하기 보다는 국민의당이 자생력을 갖기를 원한다. 대선에서는 다자구도보다 야의 일대일 구도가 유리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다. 만일 야권 후보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DJP 연합처럼 연립정부가 전제돼야 한다.

대선 결선투표제 논의해야

기회되면 원내대표 맡을 것

다.

-대선 결선투표제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 않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룰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도부 구성과 관련, 말들이 많다.

▲일단 당권과 대권 분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꼭 8월2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원, 대의원, 지역위원회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경쟁보다는 의원들이 합의 추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내대표를 맡고 싶다. 지난 2개월 동안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았지만 총선 등

으로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쌓아온 정지력을 발휘, 국민의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에서도 4선 급이 원내대표를 맡을 것이다. 경선을 해야 한다면 도전하겠다.

-당 준비를 위해 전당대회를 연기한다면 ‘안철수 사당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모든 당내 현안에 대해 오는 26~27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논의될 것이다. 우선 중진들이 당내 현안에 대한 흐름을 잡아야 한다. 당내 문제를 놓고 갈등하기 보다는 강한 결집력을 보여야 원내 3당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회의장 선출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원내 1당으로 다시 나선다고 하는데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진노, 진박 인사들은 자중해야 한다.

-원 구성에 대한 생각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두 석 이상을 맡아야 한다. 농수산식품위와 산자위는 기본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는

▲청년고용촉진법,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다. 쟁점법안은 국민의당이 양 당을 설득하고 조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막판 전남 동부권 지원 유세에 나섰다.

▲패착으로 본다. 오히려 국민의당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패권주의의 청산이라는 호남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선거 막판, 지지기도 못할 약속까지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호남 민심을 만만하게 본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아직까지 친노 패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4선 중진이 됐다. 희망하는 정치인상은.

▲물러날 때를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시대적 과제인 정권 창출에 역할을 하면서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세운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최초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완도 금일도에 들어서 5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완도금일수협 제공>

전남 최초 완도 수산물 산지유통센터 5월 가동

60억원 들여 금일도에

산지 수산물 가공·판매

전남 최초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완도에 들어선다.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남도는 21일 “수산물의 위생적 가공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이달 말 완공, 5월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완공은 지난 2013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년 4개월 만이다.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센터는 완도를 완도항에 들어설 예정이다. 다시마, 멸치, 김 등 건어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를 갖추게 된다. 센터가 가동되면 그동안 6단계(생산자→위판장→산지중도매인→소비자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였던 수산물 거래 체계가 4단계(생산자→산지거점유통센터→산지 및 소비자 매장→소비

자)로 줄어들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 수산물 가격 안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수산물 특성을 반영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직매장 등 유통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과도 연계해 어민 소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도정질의

“전남쌀 타 시·도쌀 둔갑”

박철홍 도의원

박철홍 전남도의원(당 양)은 21일 전남도 도정 질문에서 전남도가 연간 약 1000억을 투입해 생산된 친환경 쌀이 경기이전 쌀 등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전남도는 처리능력 초과분에 대한 9.9%(1만5000t)가 충남, 강원 등 타 시·도로 반출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지만 그 이상으로 반출이 되고 있을 것”이라며 “적은 예산에 막대한 돈을 보조하여 생산된 쌀이 타 시·도 쌀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지난해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15만8000t으로 국내 자체 처리용량이 14만3000t에 불과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앞으로 국내 쌀 소비업체를 적극 발굴해 전남 쌀의 도외 반출용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단보조금 대책 촉구”

김기태 도의원

김기태(순천) 전남도 의원은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와 도내 지방산업단지 지원 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사완료 공고를 통해 모든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빛가람 혁신도시의 부실공사를 지적하며, 혁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순준 기획조정실장은“시행사와 나주시가 합동으로 도로 보수공사 구간을 결정해 오는 5월말까지 완료하고, 교량 균열발생 등은 안정성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7월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전남개발공사 호텔 방만”

최대식 도의원

최대식(여수) 전남도 의원은 21일 도정질문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도 골프장 및 리조트, 오동재, 영산재, 해남팔각호텔 등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및 민간업체 매각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미래의 꿈인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의 직위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처우 불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장만채 교육감은 “단계적 임금수준 및 직무연수 기회 확대 추진으로 영양사 처우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호텔 방만”

최대식 도의원

최대식(여수) 전남도 의원은 21일 도정질문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도 골프장 및 리조트, 오동재, 영산재, 해남팔각호텔 등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및 민간업체 매각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미래의 꿈인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의 직위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처우 불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장만채 교육감은 “단계적 임금수준 및 직무연수 기회 확대 추진으로 영양사 처우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목 : 스미일 / 리서 / 라석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Advertisement for Baekwon Kwangju Law Firm. Title: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Hope is always there). Main text: 법인회생 (Corporate Reorganization). Subtext: 법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Representative lawyer: 곽민섭 (Gwak Min-seop). Services include: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특허법원 판사,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세무사, 변리사. Contact: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